

이 길에 끝

4년 전 그동안의 1세 목회를 마무리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떻게 먹고 사는가? 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는가?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 33년 사역의 기간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던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멀리 이사 왔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마음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목회라는 것을 두고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것 같은 끈끈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고 또 그러한 관계들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가까워진 관계들이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만난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내가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지만 늘 연락하며 같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진 관계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들였다고 생각한 관계들은 그대로 끝이 나고 평범하게 대했던 관계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며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후회도 된다. 관계가 지속된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드렸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였다고 하기 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인기몰이를 중요시했던 지난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본다. “분명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공생애 끝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와 하늘로 치솟는 인기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꼭 있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셨다. 사역의 끝에 그 십자가를 꼭 잡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다. 예수님 편에는 한명의 사람도 없었다. 그 중 마리아와 같이 관촬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움과 분노가 들끓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벌써부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기 원하셨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장 2절)라고 증거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과 관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셨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후회와 낙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얼마 후에 1세 목회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나에게 또 한 번의 교회 개척을 허락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회가 되고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가야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마음에 들어온다. 그것이 참 사역의 길이기 때문이다.